

제약사 실적 천양지차… ‘코로나·신약·기술수출’ 회비 갈려

종근당 매출 소폭증가, 영업익 감소
GC녹십자 백신부문 매출 공백 발생
동아에스티 영업이익 98% 감소
한미약품 복합신약 힘입어 영업익 ↑
유한양행 영업이익 1194% 폭증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성장세가 잠시 주춤했다. 대다수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올해 첫 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1분기 매출액 3107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6.1% 상승했다. 다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4억원으로 14% 줄었고, 당기 순이익은 135억원으로 24% 가량 감소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나파멜탄주’ 등 의 연구개발비가 378억원 반영된 영향도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별 점검에 따른 여파가 커다는 분석이다.



〈국내 주요 제약사 1분기 실적〉

제약사	매출액	영업이익
유한양행	3790억(21%)	1390억(1194%)
종근당	3107억(6.1%)	224억(-14.1%)
GC녹십자	2822억(-8.3%)	50억(-18%)
한미약품	2703억(-6.2%)	299억(4.2%)
동아에스티	1409억(-30%)	9억(-98%)

*()은 전년 대비 증감률

자료: 각 사

식약처는 지난 달 종근당이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종근당이 직접 제조하거나 수탁 제조한 9개의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을 조치했다. 종근당은 이 9개 품목에 대한 반품 비용 등을 1분기 충당금으로 선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움증권 허혜민 연구원은 “식약처 특별점검 조치에 따라 6개 품목의 유통 재고 회수액이 반영됐고, 9개 품목의 보

유 재고 재고자산충당금이 설정되면서 1분기 매출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GC녹십자는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822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8.3%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도 50억원에 그쳐 전년 대비 18% 감소 했다. GC녹십자는 백신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매출 공백이 발생하면서 외형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유통을 맡았던 MSD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가다실’, 대상포진 백신 ‘조스타박스’ 판매 계약이 지난해 말 종료됐고, 남반구에 독감 백신을 공급하던 시기가 지난해와 달리 2분기로 변경된 영향이 커다.

동아에스티의 경우 1분기 매출액이 1409억원으로 30% 줄었고, 영업이익은 9억원으로 98% 가량 감소하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전문의약품(ETC) 부문에 전년 대비 기저효과로 38% 가량 감소했고, 지난해 4분기 의료기기 부문의 일부 품목 계약 종료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주력제품인 스티렌, 모티리톤, 슈가논, 그로트로핀, 가스터, 주블리아 등이 12% 성장세를 나타냈다”며 “향후 중형 제품이 될 수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2분기부터는 점진적 회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역시 지난 1분기 연결기준 2703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호흡기 제품의 판매가 부진 했고, 수출 부문에도 영향을 받은 결과다. 하지만 주요 개량 및 복합 신약의 매출이 고르게 성장하며 영업이익 2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늘었고, 순이익도 80% 가량 성장세를 나타냈다.

반면, 유한양행은 기술수출에 따른 수입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유한양행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379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1390억원으로 무려 1194% 늘었다.

비처방약, 처방약, 생활건강사업부, 해외사업 부문 등 모든 사업영역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특히 베링거인겔하임 59억원, 얀센 34억원, 길리어드 16억원, 유한크로락스 3억원 등 1분기에만 154억원의 기술료 수익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셀트리온 코로나 검사키트, 식약처 조건부 허가

빠른 시일내에 국내 시판 추진
듀얼항원방식으로 민감도 극대화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디아트러스트 코로나19 항원 험 테스트’가 지난 달 30일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다.

3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디아트러스트 험 테스트’는 코로나19에 특이적으로 강하게 결합하는 셀트리온의 독자 개발 항체를 적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자의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특정 성분을 검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 방식의 키트다. 이 제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키트 내 동봉된 면봉으로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면 15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셀트리온은 ‘디아트러스트 험 테스트’를 체외진단 전문기업 휴마시스와 공동 개발했으며,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제품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셀트리온제약을 포함한 여러 유통망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디아트러스트 험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 항원만 검출하는 방식과는 달리 N항원 그리고 S항원 두 가지 모두를 검출하는 ‘듀얼항원’ 방식으로 민감도를 극대화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정확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다만 자가검사키트는 보조적 수단이므로 역학적 연관성이 명확한 감염 의심자는 반드시 방역당국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셀트리온은 이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미국에서 소아 및 성인 포함 4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으며 현재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셀트리온은 지난 4월 19일 코로나19 현장형 항원신속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에 대해 FDA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하고, 미국 시장 공급을 개시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의 우수한 항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디아트러스트 험 테스트가 조건부 허가를 받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일반인들도 제품을 구입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급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셀트리온은 이번 조건부 허가에 따라 식약처에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3개월 내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쿠팡-넥센타이어, 유통 서비스 파트너 된다

로켓설치 통해 넥센타이어 제품 판매

쿠팡은 3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넥센타이어 중앙연구소에서 쿠팡 윤혜영 리테일 부사장 및 넥센타이어 이현종 사장 등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쿠팡은 전문기사 방문서비스인 ‘로켓설치’를 통해 넥센타이어의 ‘넥스트레벨 GO’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쿠팡은 타이어 상품의 온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판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트너십은 특히 업계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두 회사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쿠팡의 데이터 기술력 및 탄탄한 고객기반, 넥센타이어의 모빌리티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다양한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사 간 시



쿠팡은 3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넥센타이어 중앙연구소에서 쿠팡 윤혜영 리테일 부사장 및 넥센타이어 이현종 사장 등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쿠팡

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넥센타이어의 ‘넥스트레벨 GO’는 비대면 타이어 방문 장착 서비스로, 타이어 전문가가 고객의 차량이 위치한 장소로 방문해 고객과 대면하지 않고도 타이어를 교체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광동제약, ISO 37001 사후심사 적합판정

부패방지방침 등 윤리경영 우수

광동제약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으로부터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사후심사 적합 판정’을 받아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법 준수의 전사적 실천을 재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ISO 37001 인증을 받은 광동제약은 매년 부패리스크 자체평가와 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 심사받아야 한다는 ISO 37001 규정에 따라 최근 부패방지책임자 및 주관부서를 포함해 전사적으로 팀과 지점 등을 대상으로 한 사후심사를 진행했다.

ISO 37001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한 외부인증심사원의 심사결과 부적합 사항은 없었으며, 광동제약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의 실질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패방지책임자의 강력한 의지가 우수 사항으로 꼽혔다. 이밖에도 ▲임직원 가이드용 ISO 37001 업무편람 제작 및 배포 ▲부패방지방침과 익명제보 채널이 소개된 판촉물 대내외 배포 ▲익명성 강화를 위한 외부 익명제보 채널(행복마루) 운영 등도 부패방지를 위한 우수 활동으로 평가받았다.

광동제약은 윤리경영문화 정착과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2018년부터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준비, 지난해 인증을 받았다. 이 회사는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를 위해 2018년 익명제보 시스템을 개설,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했다. 이 밖에 매주 임직원들에게 발송하는 윤리경영 뉴스레터를 통해 윤



광동제약은 공정한 기업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사내 교육도 활발하다. 신입사원 교육 과정에는 윤리경영 전반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필수 과목으로 포함돼 있으며 기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방지교육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교육을 본사와 각 지점, 사업부별로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파마리서치와 관절강주사 판매 협력

SK케미칼이 파마리서치와 관절강주사 판매 협력키로 했다.

SK케미칼은 3일 파마리서치와 관절강주사(의료기기)인 ‘콘쥬란(사진)’의 종합병원 마케팅 및 영업에 대한 공동 프로모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 이번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관절강주사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어, 관절강주사 제품의 라인업을 강화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근골격계 영역의 마케팅 역량이 뛰어난 SK케미칼과 손을 잡고 콘쥬란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콘쥬란은 점도가 높은 폴리뉴클레오

티드나트륨이 들어 있어, 무릎 관절강 내로 주입하게 되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여 관절 마찰과 통증을 줄여준다.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이미 유럽에서 10년 넘게 사용한 원료로 임상 자료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성분이다. 콘쥬란은 국내에서 2019년 1분기 발매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무릎 관절강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 급여가 확대되어 더 많은 관절강 환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한편 SK케미칼은 관절강염치료제로써 400억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트라스트 패치 이어 관절강 내 주사인 콘쥬란까지 더해 치료제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다. /이세경 기자